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혜경

(호원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 가정과 이주배경 대학생
 - 2.2. 이주배경 대학생의 적응과정
3. 연구방법
 - 3.1.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 3.2. 연구 참여자 선정
 - 3.3. 자료 수집과 분석
 - 3.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4. 연구결과
 -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 4.2.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 과정에 대한 구성
 - 4.3.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 과정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직면하는 심리적·사회적 적응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적응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논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참가자 5인을 선정하고 근거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여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적응은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 ‘초기 문화적 배제 경험’, ‘심리적 동요’, ‘심리적 지지 기반’, ‘자율적인 삶의 선택’, ‘정서적 고립의 문제대처’, ‘미래지향적인 태도’, ‘정서적 지지 부족’, ‘학업에 대한 부담감’, ‘언어적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 ‘정서적 지지 기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다문화 기관 자원 활용’, ‘사회적 적응의 성취’, ‘심리사회적 회복력 증진’, ‘사회적 통합 및 자율성 강화’란 1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초로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과정은 첫째, 불안한 출발, 둘째, 일상의 단절감, 셋째, 현실적 압박감, 넷째,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 다섯째, 자기주도적인 적응, 여섯째, 자립적 삶의 정착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응발달 단계별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에 이주배경 대학생, 한국 사회 적응 과정, 한국 사회 적응 경험, 자기주도적 적응, 근거이론 방법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단일 민족 중심의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도 반영되어,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일정한 기반을 토대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응 경험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적·사회적 통합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다문화 학생 수는 2022년 168,645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3.2%를 차지하였고(교육부, 2023),¹⁾ 2023년에는 181,178명(3.5%),

2024년에는 193,814명(3.7%)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24).²⁾ 이러한 추이는 다문화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은 언어능력 향상, 문화 적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고등교육 기관 내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체 이주배경 학생 중에서는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고용환·박시균, 2023; 곽연륜·김리나·백아룡·2024; 김영란·이자영, 2021). 최근 들어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출생하여 청소년기 또는 아동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외국인 가정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는 지난 10년간 약 8.6배, 중도입국 학생은 약 1.9배 증가하면서 이들 집단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4).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초·중등 교육 단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제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을 통해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곽연륜외, 2024).

그러나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다문화·이주배경 학생들은 언어,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적응 과제를 경험하고 있다(김송렬·장안서, 2021). 특히 성인기로의 이행기라는 특수성과 함께, 고등교육 환경에서의 소외감이나 정체성 혼란, 진로 불안(김영란외, 2021)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연구는 주로 초·중등 교육(김송렬외, 2021; 김영란외, 2021; 조진경·김영순, 2016)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성인기로 접어든 다문화배경 청소년층과 중도입국 대학생에 대한

1) 교육부 2023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김재훈·연구진·장현진·김민선, 2022). 이들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 교육제도, 사회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적응을 동시에 요구받는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및 사회참여,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조진경외, 2016).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경험한 차별에 관한 연구(고용환외, 2023)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국내 연구(곽연륜 외, 2024)는 존재하지만,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다룬 통합적 모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김송렬외, 2021; 김진희·이로미·권진희, 2021)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주배경 대학생의 사회적·교육적 적응과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도입국 대학생들은 다중언어 환경과 문화적 이질성, 제도적 정보의 부족, 또래 집단과의 거리감, 차별과 낙인 경험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재훈 외, 2022; 곽연륜 외, 2024).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심리사회적 이중의 장벽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이주배경 대학생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겪는 문화적·사회적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한국어 습득, 교육제도 적응, 또래 및 사회관계 형성, 등 다양한 과제를 짧은 시간 내에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은 기존 국내 출생 다문화 청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들이 대학이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였으며, 사회적 소속감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회통합과 교육지원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사례 중심의 질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이주배경 대학생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적응과정 경험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이주배경 대학생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셋째,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회통합 및 교육정책에 어떠한 실질적 함의를 주는가?

이러한 탐색은 이주배경 대학생의 자기 이해와 삶의 재구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적 실천과 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가정과 이주배경 대학생

다문화가정은 주로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들 가정의 자녀 역시 출생 및 성장 배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 해외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국내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 그리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 가정 자녀 등이 대표적이다(김송렬외, 2021). 이와 같은 이주배경 청년들은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이후에도 각기 다른 사회적응의 양상을 보이며, 그들의 출신 배경은 대학생활 및 한국 사회 내 적응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미숙·최정호, 2024).

한편, 실질적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208,962명으로 전년 대비 27,120명(1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학생 중 중국 국적 학생이 72,020명(34.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55명(5.8%)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어 베트남 56,003명(26.8%), 몽골 12,317명(5.9%), 우즈베키스탄 12,025명(5.8%), 네팔 6,135명(2.9%) 순으로 나타나 주로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경우 중국 학생(62,623명, 43.0%), 베트남 학생(30,871명, 21.2%)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각각 전년 대비 3.8%(2,267명 ↑), 16.5%(4,371명 ↑)가 증가한 수치이다(교육부, 2024). 이러한 통계는 한국 고등교육 환경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2. 이주배경 대학생의 적응과정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언어, 외모,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되며 특히 대학이라는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더욱 복합적인 사회적응 과제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외모나 부모의 국적 및 출신 배경을 이유로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피해의식을 갖게 되며, 한국 사회로부터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고용환·박시균, 2023; 박한결·박하영·이채현·신형진, 2024).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배경 대학생들의 사회적·심리적 적응 경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³⁾

특히 중도입국 대학생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한국어 습득, 가족 및 또래관계 재구성, 학교문화와 사회 규범의 수용 등 복합적인 적응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주민 자녀 집단에 속한다(윤형준, 2019).

이들은 국내 출생 다문화 청년과는 다른 이주 경험과 문화 간의 갈등을 겪으며, 언어적 장벽, 사회적 소외, 제도적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 생활과 한국 사회 전반에의 적응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3) 『대학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과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과 모색(2023)』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발표된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 36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부분이 양적 연구에 치우쳐 있으며, 특정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심리적 적응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있다(김송렬외, 2021; 조진경외, 2016).

실제로 중도입국 대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언어, 문화, 정체성의 기반과는 다른 환경인 한국 사회에 진입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존재적 질문에 직면하며(김송렬외, 2021),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은 또래 청년들과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생애사적 경로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 탐색, 학업 수행, 사회 진입 과정에서도 차별화된 경험과 도전을 마주한다(김영란외, 2021; 윤형준,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목소리는 정책 논의나 제도적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다문화배경 대학생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사회 내에 어떠한 문화적·사회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 또래 및 사회적 관계의 구축, 대학생활의 여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복합적인 삶의 양상을 내러티브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색을 통해 다문화 청년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적 실천, 그리고 다문화 배경 청년의 이론적 기반 마련에도 유의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3.1. 근거이론 방법(grounded theory method)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을 다루고 있으

4) 김해시복지재단(2023)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다문화국가로의 진입 단계에 있으며, 이주배경지원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시혜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당사자 목소리의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된다.

며,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간적이며 공간적 맥락의 복잡성과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실존적인 경험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단계들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Glaser & Strauss, 1967)을 선택하여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상황의 단계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어떤 현상적 조건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개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점이 근거이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7; 박동숙, 임해영, 김은경,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통하여 상황을 귀납적으로 탐색하며,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경험적 존재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이론 방법(Strauss and Corbin, 1998)이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면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장기간의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학업,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적 적응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적응 경험을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특히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모집하여,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초기에 직면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연령이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개인적 배경과 경험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의 일환으로 ‘평판적 사례선택 방법(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였다. 이는 해당 집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의 평가와 추천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참여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서 신뢰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 대학생을 상담 및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로부터 연구 조건에 적합한 3명의 참여자를 추천받았으며, 이후 이들 중 2명을 통해 추가로 2명을 소개받아 총 5명의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목적, 절차,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선정 기준과 경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실제 발화를 기반으로 범주를 구성하고, 각 범주에 대응되는 구체적 진술과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명의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 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연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험을 가진 이주배경 대학생들로 이들의 진술은 본 연구의 핵심 범주 도출과 해석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3.3. 자료 수집과 분석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들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감 형성은 연구의 질적 깊이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참여자들과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예비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임하게 되었고, 이는 연구의 질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N=5)

참여자	성별	연령	출신국	부모 국적	입국연령	학력	진공	한국어 능력	한국 체류 기간	부모님 한국 거주	종교
1	여	22	베트남	한국 베트남	13살	대학1 재학중	국어국문	중상	9년	16년	없음
2	여	21	베트남	한국 베트남	11살	대학1 재학중	관광경영	상	10년	12년	없음
3	여	23	베트남	베트남	13살	대학1 재학중	관광경영	중하	10년	13년	불교
4	여	20	베트남	한국 베트남	10살	대학1 재학중	경영학과	상	10년	15년	없음
5	여	24	베트남	한국 베트남	13살	대학1 재학중	경영학과	중하	11년	16년	불교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1:1 면담을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 90분 이상의 개별 면담을 2회씩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내면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세심한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깊이를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인터뷰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감 형성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실제 적응 경험과 그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최소 3회 이상 정독하여, 한 개인의 발화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우선 각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모아 연구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원자료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이를 다시 개념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후 각 개념에 제목을 붙이고, 이를 분류·비교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념을 도출할 때에는 참여자와 주변 맥락, 사회적 관계, 사건의 다양한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중복되거나 모호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적응 경험-하위범주-범주-요소'의 체계를 도출하여,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구축하였다.

3.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는 연구 결과와 그 해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결과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흔히 신뢰성 또는 연구의 질적 정확성이라고도 표현된다. (최미경, 2018; Lincoln and Guba, 1985).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는 연구 과정과 결과의 신뢰도와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이 왜곡 없이 반영되고, 연구의 해석이 정당한지를 입증하는 Padgett(Trauss and Corbin, 1998)이 제한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뜻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들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Prolonged Engagement)을 위해 연구 전반에 걸쳐 일상적 만남과 대화를 지속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통해 방어적 태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진솔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은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예를 들어, 학교 인근 조용한 카페, 다문화센터, 연구실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 윤리에 따라 공공장소 선정 시 비밀보장이 가능한 좌석 배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참여자의 자발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실제로 참여자들은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점차 자신의 경험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고 피드백하였다. 연구자가 다문화종합지원센터에서의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다는 점도 참여자와의 rapport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반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인터뷰 문항의 적절성 검토, 범주화 과정의 타당성 검토, 해석 내용에 대한 검증 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조언과 피드백은 자료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동료 교수 중 질적 연구방법론을 전공한 교수 1명과, 다문화종합센터에서 10년 이상 이주여성 상담을 수행한 전문상담사, 그리고 법원 상담을 10년 이상 진행해 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들 전문가들과 주기적인 협의를 거치며, 참신한 관점과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분석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참여자의 실제 경험과 연구자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바깥 환경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학교 밖의 다문화종합센터에서 만남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면담 내용을 다시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경험과정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려가 연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스스로 편안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인터뷰 녹음과 자료 사용이 학문적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가 종료되면 모든 자료는 즉시 폐기될 것임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연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솔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윤리적 배려와 철저한 설명은 연구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적응 경험의 범주 분류

〈표 2〉 이주배경 대학생의 적응과정에 관한 요소와 범주 목록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요소
함께 지낸 할머니와의 이별 모국 친구들과의 헤어짐	관계 상실 경험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	원인적 조건 (causal condition)
엄마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동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	통제권 상실 경험		
갑작스럽고 빠른 결정의 이주 모국의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전	계획되지 않은 이주		
그냥 베트남에서 살지 편안했던 집과의 분리	환경적 분리 경험		
엄마와의 동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문제	양육자와의 관계 긴장	초기 문화적 배제 경험	
낯선 환경에 대한 도전 친구를 사귀는 데 주저함	사회환경 적응의 어려움		
2~3살 많은 동급생들과 학업 주변인으로 존재하는 경험	정서적 소외		
발달지체에 대한 위기감 심리적 불확실성 속의 자기탐색	인지적 정보 격차		
학교 내 정서적 소외 경험 지역 공동체 내 문화간 이해 부족	사회문화적 배제	심리적 동요	
심리적 소속과 사회적 기준 간의 괴리 자기존중감 감소 비관적인 자기 시각	자아 정립의 불안정성		
부모에 대한 정서적 양가감정 확장 가족과의 관계 긴장	가족 체계 내 긴장		
비교로 강화된 학습 열등감 언어장벽으로 인한 자기개념 약화 심리적 흔적	자기 패배적 신념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요소
문화적 정체성 유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가는 안정감 문화 간 유연성과 소속감 확장	문화 간 정체성 통합 형성	심리적 지지 기반	중심현상 (phenomenon)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지지 제공어머니와의 정서적 소통 경험 친밀한 또래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적지지 관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판단과 선택 삶의 방향에 대한 주체적 구성 목표설정과 자기 주도적 실행	의사결정의 독립성 경험	자율적인 삶의 선택	
교육 경험을 통한 자기 효능감 형성 사회적 소속감 및 자기 가치 인식 학습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	교육 경험을 통한 자기 가치 인식	정서적 고립의 문제대처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의도적인 침묵과 회피 혼자 버티기 전략 스트레스를 혼자 삼킴 사회적 단절 강화	외로움을 혼자서 견뎌		
내면적인 자기 위로	심리적 자기돌봄 경험	미래지향적인 태도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희망과 기대의 표현		
감정이나 고민을 스스로 누름 걱정 끼칠까 봐 참고 견뎌	정서적 표현의 억제	정서적 지지 부족	
관계에서 단절감과 거리감을 느낌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	관계에서의 소외감		
비공감적 반응에 따른 감정적 소외 이주 배경에 따른 사회적 낙인 경험	신뢰성 없는 관계 문제		
감정 공유에 대한 욕구 공감적 반응에 대한 기대	관계 내 소통 결핍에 대한 갈망	학업에 대한	
학교생활의 차별 대우 강박감 성적처리에 대한 역불평등	학교생활의 차별 불안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요소
베트남어로 된 학습지도매뉴얼 부족 한국의 공부방법이 너무 달라서 힘들	학습방법 접근에 대한 어려움	부담감	
학습 상황에서의 자기 표현 회피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행동 패턴	의사소통 실패에 대한 학습 회피	언어적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	
안내나 설명의 맥락을 놓쳐 정보에서 소외 수업과 과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	상황 이해의 어려움		
심리적 긴장 해소 위해 상담 활용 다문화센터의 심리적 지원 받음	심리상담 받은 경험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	작용/상호작용 (action/interaction)
정서 해소를 위한 동아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	여가 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생계 보조를 위한 아르바이트 참여 자기효능감 및 자립감 향상	경제활동으로 가정경제 기여		
친한 친구와의 감정 공유 문제에 대한 조언과 방향 모색	지인들과의 고민 나눔	정서적 지지 기반	
학습자 정체성의 긍정적 인식 형성 자기 실현을 위한 교육적 노력	자기실현에 대한 내적 동기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운전면허,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 단계적 준비와 실행 계획 수립	현실 기반의 미래 설계		
다문화센터에서 한국말과 문화를 배움 센터의 지원은 한국 사회적응에 기여	다문화 기관의 도움	다문화 기관 자원 활용	
한국어 배우며 학업 이해 도움 언어교육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	언어교육의 효과		
다문화센터에서 친구 만남 다문화센터에서 인간관계 형성이 도움 됨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		

적응 경험	하위범주	범주	요소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규범 이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확대	문화적 이해와 수용	사회적 적응의 성취	결과 (consequence)
친구,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 강화 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자원 활용	사회적 네트워 크의 확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향상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	자기효능감의 강화	심리사회 적 회복력 증진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 자기성장을 위한 희망적 시각	미래지향적 태도의 함양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 형성 문화적 이질감 해소	문화적 정체성 의 수용	사회적 통합 및	
주체적 의사결정의 강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자기결정력의 향상	자율성 강화	

4.2.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 과정에 대한 구성

4.2.1. 원인적 조건(causal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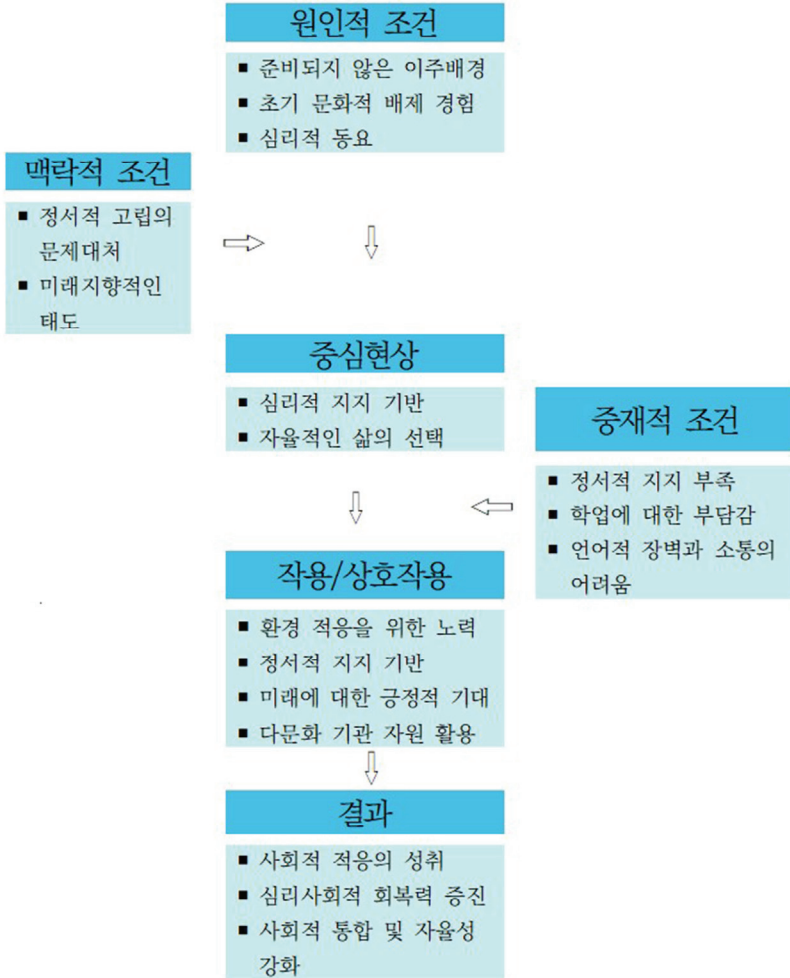
인과적 조건은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들의 적응 과정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개인이 겪는 사건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과 대인 상호작용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성령, 오영훈, 2022).

본 연구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 ‘초기 문화적 배제 경험’, ‘심리적 동요’라는 3가지 범주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로 이주한 후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에 이주하게 된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이주를 결정하고 준비하게 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엄마가 갑자기 빨리 한국에 오라고 했다.”, “엄마가 일찍 오면 적응을 빨리할

수 있어서 오라고 한 거 같아요.”, “언어도 모르는데 그냥 한국에 가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다.”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출처: 박동숙 · 임혜영 · 김은경(2019)

〈그림 1〉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에 대한 구성

이러한 경험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이주가 이주배경 대학생들에게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켰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전 정보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이주는 언어·문화적 장벽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과 학업·사회적 관계 형성 등 여러 방면의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주배경의 특성과 그로 인한 도전 과정에는 다문화정책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나. 초기 문화적 배제 경험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초기 입국 단계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가운데, 특히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응 과제로 드러났다. Berry(1997)의 적응문화이론에서 주변화(marginalization)나 분리(separation)상태가 나타나듯이 이들은 본국에서와는 다른 또래 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혼란을 겪었다(최현정, 문희진, 2025). 참여자들은 나이 차이가 나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에서 어색함과 소외감을 느꼈으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대화조차 어려워져 문화적·정서적 거리감을 깊게 체감하였다. 본국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다 동갑하고 학교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는 자신보다 2살이나 3살 어린 동생들과의 학교생활이 가장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2살이 어린 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와서 매일 혼자 앉아 있었고,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고, 뒤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를 들으라는 듯이 이해도 못하는 가봐 하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언어 문제를 넘어, 이주배경 학생들이 문화적·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직면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 심리적 동요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과 언어적인 한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정서적 불안과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심리적인 동요를 드러낸다.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참여자는 학생들이

멀리 있고 자신은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깊이 체감했다고 한다(참여자 2).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대화조차 이어가지 못했던 경험(참여자 1)은 큰 속상함과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반복된 관계 단절과 언어적 어려움은 참여자로 하여금 '여기서 뭐하지'라는 막막한 생각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이주 초기 단계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심리적 동요와 정체성 혼란을 동시에 겪는 복합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4.2.2.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이주배경 대학생의 적응 경험에서 인과적 조건과 중심 현상 사이에 위치하는 개인적 차원의 역사적·환경적 요인으로, 이들의 내적 자원과 정서 상태를 주로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성령외, 2022). 이러한 맥락적 조건은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립의 문제대처', '미래지향적 태도'라는 심리적인 맥락들을 드러내고 있다.

가. 정서적 고립의 문제대처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이주라는 시공간적 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은 적응과정에서 정서적 고립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혼자서 견디거나, 외로움을 스스로 감내하는 전략을 통해 가족 내 긴장과 충돌을 완화하고 학업 및 또래 관계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과 소외감을 경험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지지를 떠올리며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

거나 의도적으로 침묵하며 버티는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적 고립의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2는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생각을 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혼자서 버텼어요”라고 말하며, 연구 참여자는 외로움의 경험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었다고 보고하였다.”참여자 3은 “속상한 일들은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꼭 참았어요.”라고 이야기하여 감정적 어려움을 스스로 내면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혼자서 조용히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참여자 1, 4).

이러한 경험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며 내면적으로 자기 위로를 실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미래지향적인 태도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로, 한국어를 성실히 배우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참여자 1,2,3,4,5)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정 내에서 평등하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자신들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학업과 일상, 그리고 가족과의 조화를 통해 이들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자신만의 행복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4.2.3. 중심현상(phenomenon)

현상은 현재의 순간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범주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며 핵심적인 과정을 구성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성령외, 2022). 중심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상황적 조건의 영향

을 받아 발생하며,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통해 조절되는 핵심적인 인식이나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심리적 지지 기반’과 ‘자율적인 삶의 선택’으로 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 심리적 지지 기반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동화적인 방식을 선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 사회의 가치관에만 맞춰 사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마주할 때, 자신의 모국 문화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문화적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를 적절히 혼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국 문화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상담 교사의 지속적인 지지 제공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동시에 어머니와의 정서적 소통 경험(참여자 4)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일부인 모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모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심리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모국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며 자신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참여자 2,3,4), 이를 자신의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자산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어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나. 자율적인 삶의 선택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초기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율적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갔다. 이들은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진로 및 미래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제도적·문화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 모색과 학습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삶의 주요 선택에서 자율성과 방향성을 확보하며, 구체적인 실행력을 기반으로 개인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주요 생활 공간으로 전환되었으며, 공동체 내 일원으로서의 역할 인식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정체성 혼재의 경험 속에서도 모국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서 자기조절 및 시간관리 역량(참여자4)을 통해 삶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교육과 학습 경험이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며, 향후 삶의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이주배경 대학生の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현상의 발현을 완화하거나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8; 이성령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작용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정서적 지지 부

족’, ‘학업에 대한 부담감’, ‘언어적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가. 정서적 지지 부족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스스로 억제하고, 가족이나 타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참으며 견디는 모습의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참여자 1,3). 또한 학교생활에서 단절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놓여 있음을 토로하였다(관계에서의 소외감). 참여자 4는 “한국말도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학교에 와서 매일 혼자 앉아 있었고, 밥 먹으러 갈 때도 혼자였어요.”라고 한다. 또한 관계에서의 신뢰성 없는 태도나 비공감적 반응으로 인해, 이들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주배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경계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현실도 있었다. 참여자 중 3은 “학교의 어떤 선생님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어디 어디 하면서 너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모르면 물어봐 하면서 말투가 좀 이상하게 말을 해서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과 감정 공유를 갈망하며, 공감적 반응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고립감과 동시에 공감적 관계 맺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함께 보여준다.

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안감을 경험하며, 특히 학업성적에서 강박감과 역불평등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2번 3번 참여자는 “한국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공부하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인 아이들이 더 성적이 나오죠. 성적을 다르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토로하며, 학업성취도에서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들은 동료 학생들과의 비교나 무언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며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 1번 참여자는 “많이 공부를 해도 한국 친구들을 따라 갈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2번 참여자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볼 때는 한국인처럼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인들에게 성적을 주듯이 저의에게도 똑같이 성적이 주어지고 있어요.”하는 등 학업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학업과 관계를 재조정하는 노력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습 환경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였다. 한국의 공부 방법이 너무 달라 학습에 혼란을 겪었고, 특히 모국어로 된 학습지도나 메뉴얼이 부족하여 학업을 이어가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도하고,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며 적응해 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역경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다. 언어적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어 사용에 대한 한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언어적 장벽과 소통의 어려움을 자주 경험한다. 이들은 학습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주저하거나, 의사소통 자체를 회피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3은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 매일 사전을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빠른 속도의 강의와 복잡한 전문용어 때문에 수업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한 수업 중이나 과제를 수행할 때 안내나 설명의 맥락을 놓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해 수업과 과제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겪었다. 참여자 4는 “수업 중 질문이 있어도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쉽게 손을 들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도 낯설어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학습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학업적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정 모두

에서 큰 도전을 마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2.5.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실재할 때,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업이나 일상 적응 과정에서 목표를 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강유미·신혜중, 2010).

중재적 조건에 대처하거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 ‘정서적 지지 기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다문화 기관의 자원 활용’으로 나타났다.

가.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4번 참여자는 “저랑 동갑인 애들이 일을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혼나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항상 똑같이 열심히 해도 사장님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화적 차별과 심리적 긴장을 토로했다. 이처럼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활용하고, 다문화센터의 심리적 지원을 받으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가 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해소를 도모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기 효능감과 자립감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환경 적응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나. 정서적 지지 기반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정서적 지지 기반으로 지인 및 친한 친구들과의 감정적 교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활용한다. 5번 참여자는 학교에서 같은 처지의 학생을 만나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르바이트 중에도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 관계는 심리적 안정성을 증진하고, 새로

운 환경에의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 경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품으며 자기실현을 향한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학습자 정체성의 긍정적 인식 형성과 교육적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3번 참여자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고,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참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업 및 사회적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하려 한다.

또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현실 기반의 준비로 구체화한다. 이들은 국적 취득, 운전면허,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단계적 준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학업과 직업적 안정,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미래를 향한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 실행적 태도는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립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라. 다문화 기관의 자원 활용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다문화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 다문화센터는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문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학업 이해와 인간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다문화센터의 지원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사회적 통합과 심

리적 안정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4.2.6.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중재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산출물로서 형성되는 모든 범주를 의미하며, 이에는 긍정적·부정적 결과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태도나 계획과 같은 요소도 포괄된다(Strauss & Corbin, 1998; 이성령외, 2022).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적응 경험은 상호작용적 접근 전략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중재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업과 사회적 관계의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인 적응 성과를 도출해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사회적 적응의 성취’, ‘심리사회적 회복력 증진’, ‘사회적 통합 및 자율성 강화’라는 범주가 분류되었다.

가. 사회적 적응의 성취

사회적 적응의 성취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또한, 친구와 교사 등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간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학교생활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나. 심리사회적 회복력 증진

심리사회적 회복력 증진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자기효능감

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업이나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점차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학업과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 사회적 통합 및 자율성 강화

사회적 통합 및 자율성 강화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수용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통해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하며 문화적 이질감을 점차 해소해 나간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결정을 스스로 주도하려는 의지가 강화되면서 주체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키운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율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3.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 과정

본 연구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구안된 패러다임을 토대로, 범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중심 현상을 둘러싼 일련의 조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 과정은 ‘불안한 출발’, ‘일상의 단절감’, ‘현실적 압박감’,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 ‘자기주도적인 적응’, ‘자립적 삶의 정착’이라는 5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4.3.1. 불안한 출발

첫 번째 단계는 불안한 출발에 직면하는 단계이다. 불안한 출발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마주치는 초기 적응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는 낯선 문화와 언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며, 처음 접하는 새로운 규범과 제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나타난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이러한 불안과 긴장을 안고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문화적 충돌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불안한 출발은 이들이 이후에 자신감을 얻고, 점차 사회에 통합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작용한다.

4.3.2. 일상의 단절감

두 번째 단계는 일상의 단절감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이전의 익숙했던 생활방식과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이 서로 단절되는 것을 경험한다. 낯선 문화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생활패턴이나 관계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특히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의 외로움과 관계 단절의 경험을 겪는다. 이러한 소외감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로 더욱 심화되며,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상의 단절감은 초기의 불안과 긴장 이후,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다시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이어지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4.3.3. 현실적 압박감

세 번째 단계는 현실적 압박감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학업, 생계유지, 언어 습득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직면한다. 경제적 부담,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 가족과의 역할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생활의 무게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특히 학교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주변에서의 심리적·정서적 지지의 부족함으로 인해 더욱 깊은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압박감은 초기의

불안과 문화충격, 단절된 일상에 이어, 실질적인 생활적응의 중심 과제로 이들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4.3.4.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초기의 두려움과 단절감, 현실적 압박을 넘어,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적응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며, 학업과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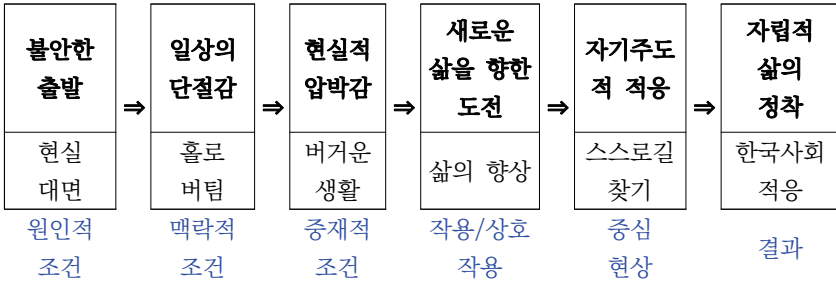
4.3.5. 자기주도적인 적응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주도적인 적응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초기의 불안과 문화충격, 단절감과 현실적 압박을 넘어, 점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으며, 학업과 생활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적응을 통해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실현해 나간다.

4.3.6. 자립적 삶의 정착

여섯 번째 단계는 자립적 삶의 정착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초기의 불안과 단절감, 현실적 압박,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스스로 넓혀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자립적 삶의 정착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완성 단계로 작용한다.



참조 : 사회적응과정 모형은 논문전체의 흐름도를 작성함

〈그림 2〉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관한 모형

5. 결론

최근 아시아를 포함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3국 출생 중도입국 학생들의 이주 배경과 학교생활 적응,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논의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출생·성장한 후 중도입국한 자녀들은 입국 초기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언어적 제약은 또래 관계 형성, 학업 수행,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곽연륜외, 2024). 아울러 입국 이후에도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김영란외, 2021), 이로 인해 청소년기 정서 발달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이주배경 대학생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개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성령 외(2022)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주배경 대학생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이주로 인해 2~3살 많은 동급생들과 함께 학업을 하며 주변인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서적 소외감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김송렬 외(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라는 생애 주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업 수준과 진로 불확실성, 그리고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겪는 자아정체성 혼란이 중첩된 복합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보인다.

참여자들은 관계 속 어려움을 외부에 드러내기보다 혼자 견디고 감정을 내면화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지지 체계의 부재와 언어적 제약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동반하며, 자율적 감정조절 전략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고립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존재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외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심리적 내면세계와 감정조절 양식에 주목하여 그 복합적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만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해 가족 내 갈등이나 학교에서의 차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자신감을 갖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령 외(2022)의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과

정에서의 언어적·학업적 어려움과 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주배경 대학생의 생활 적응을 고려할 때, 한국어 능력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어 의사소통 역할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서적 지지의 결여, 학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 그리고 언어적 제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란 외(2021)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언어 및 학업 부담감을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어렵게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게 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점이 사회 적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소외감과 다양한 차별적 대우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이성령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학업 결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열등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대학생들에게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치료를 통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배경 대학생의 사례유형별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적응상의 어려움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고용환 외(2023)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국적인 외모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고, 외모로 인한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거나,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한 바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외

모적 차이가 곧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에서는 차별적 대우,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평가, 그리고 모국어 기반 학습자료나 지침서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편견과 학업·생활상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유지하며 이중언어를 병행·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중언어 구사의 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곽연륜외, 2024, 백아롱, 2022),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경험이 단순한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자아존중감 회복의 심리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각종 여건의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으로 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 정서적 지지 기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다문화기관 자원 활용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이주 후 초반에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도, 전반적으로 다문화적 환경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의 교류는 물론, 한국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김정희, 2019).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작용/상호작용 접근 전략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임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의 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적응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주배경 대학생들 역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주변의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 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배경 대학생의 한국 사회 내 성공적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중요한 기저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기반으로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 대학생의 개인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 기반으로서, 이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려는 수용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대학생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이를 지지·수용하려는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화 전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연구기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형준(2019)연구에서는 대학 차원에서의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적응 경험을 다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한국 생활의 경험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나 학교생활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가족생활 적응 경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신적 안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요소와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이들의 효과적인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청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경험을 위한 실천적이고 행정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은 대학 내 한국어 강좌를 교양과

목으로 개설하거나 확대하며, 한국어 맞춤형 프로그램(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통합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가 능숙한 또래 학생들과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습득을 돕고, 발표·토론·발표자료 작성 등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교 내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의사소통 코칭을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째,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과제 및 시험 준비를 위한 학업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전공 용어 및 과제 작성법, 리포트 작성법에 대한 튜터링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교 시스템(수강 신청, 장학금 신청, 도서관 이용법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배포하며, 학과별 오리엔테이션과 학습적응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정서적·심리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이주배경 대학생 전용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모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전문상담자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문화축제, 전통 음식 나눔회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체성 형성과 자아 존중감을 강화하며,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존중하는 교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지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별도의 지원보다는, 기존 장학제도의 보완 및 연계 중심의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배경 대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전반이 직면하는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안내 및 주거, 의료, 금융, 취업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정보 제공 방식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국어 안내서의 제작과 온라인 기반의 정보 포털 구축 등은 실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으로, 이주배경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생활안정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공동체 기반의 지원을 위해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선배들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주배경 대학생 커뮤니티를 조직·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캠프와 문화교류회를 통해 한국 대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

며, 봉사활동과 공동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여섯째,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대학 내 다문화학생 지원센터를 설립·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주배경 대학생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이주배경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일곱 번째, 본 연구는 베트남 출신 여성 중도입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참여자 구성이 특정 성별과 국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남성 중도입국 대학생을 포함한 성별 간 비교, 또는 다양한 국가 출신 이주배경 대학생의 사례를 포괄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폭넓고 입체적인 적응 경험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문화적·성별적 다양성을 반영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주배경 대학생 지원 방안의 실효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환·박시균(202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한국 사회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5, 29-55.
- 교육부(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관계기관 합동.
- 교육부(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 곽연륜·김리나·백아롱(2024).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이주배경학생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와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8(3), 25-49.
- 김송렬·장안서(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네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 김영란 · 이자영(2021). 중도입국 청소년이 지각하는 초기 사회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분석, <다문화와 평화> 15(3), 55-76.
- 김정희(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 자본화를 위한 다문화 범주화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질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1), 34-55.
- 김재훈 · 연구진 · 장현진 · 김민선(2022).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차별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3(4), 842-852.
- 김진희 · 이로미 · 권진희(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1), 117-146.
- 박동숙 · 임해영 · 김은경(2019).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5, 5-41.
- 박미숙 · 최정호(2024).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인친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8(2), 1-20.
- 박한결 · 박하영 · 이재현 · 신형진(2024).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문화변용 전략으로서의 이중문화주의, <다문화와 평화> 18(3), 95-113.
- 백아롱(2022).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매개효과: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19-46.
- 윤형준(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21> 369-378.
- 이성령 · 오영훈(2022).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경험 연구: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와 평화> 16(2), 30-55.
- 조진경 · 김영순(2016). 고등학교 영어수업에 참여한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협상 과정과 특성,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213-233.
- 최미경(201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정 · 문희진(2025). 국내 베트남 대학원생의 학습자 행위주체성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9(1), 63-188.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Lincoln, Y. S., and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 Padgett, D. 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s, 1998.
- Strasuss, A. L. & Cobin, J. M.(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필자 소개

성 명 전혜경

소 속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주 소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1동 312호

전자우편 lsch4219@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ing Process of Korean Society of University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 - Centered on Middle-income Youths in Vietnam -

Jeon, Hye-kyung
(Howon University)

By analyzing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experiences that college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s face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meaningful points to support and support their adaptation.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five study participants and analyzed their experiences in depth using a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According to the analysis, 17 categories were derived for the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s: “unprepared migration background,” “early cultural exclusion experience,” “psychological agitation,” “psychological support base,” “self-reliance life choice,” “future-oriented attitude,” “lack of emotional support,” “burden on academia,” “verbal barriers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efforts to adapt to the environment,” “emotional support base,” “positive expectations for the future,” “utilization of resources from multicultural institutions,” “achievement of social adaptation,” “promoting psychosocial resilience,” and “strengthening social integration and autonomy.”

Based on this,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s’ experience of adapting to Korean society was first, unstable start, second, a sense of daily disconnection, third, realistic pressure, fourth, a challenge to a new life, fifth, self-directed adaptation, and sixth, a stage of settlement

of an independent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an intervention plan for each stage of adaptive development to effectively support the adapta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 Korean social adaptation process, Korean social adaptation experience, self-directed application, and grounded theory method

투고일 2025. 06. 10 / 심사일 2025. 07. 13 / 게재확정일 2025. 07. 21